

# 신문보도를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비교

김 영\*

(e-mail: youngkim@dhu.ac.kr)

---

## 目次

---

1. 머리말	(1)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2. 일본의 언론보도	(2)분석유목
(1) 미디어 내셔널리즘의 부상과 독도	4. 연구결과
(2) 일본어론에 나타난 한국 인식 및 이미지	(1) 보도의 양적 분석
3. 연구방법	(2) 보도의 질적 분석
	5. 결론을 대신하여

---

## 1. 머리말

2012년 여름은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며 정치·경제·문화 분야를 막론하고 한일 양국이 쌓였던 불만이 속출하여 유례없는 갈등국면을 맞이한 한 해였다. 특히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단초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2012년 8월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후 8일간의 한일 정세를 양국 신문의 보도기사를 통해 그 전개양상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한일 간 갈등이 가장 정점에 달했을 시점에 한일 신문의 보도 경향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신문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양국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종래 거의 대부분 독도분쟁에 관한 갈등이 일본의 정치인이나 우익단체의 발언 등에서 야기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갈등의 원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

\* 대구한의대학교 일본어과, 일본문화·일본문화학 전공

\*\*본 논문은 영남대 독도연구소 긴급좌담회(2013.9)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

이 우리나라 현직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한일 양국 신문에 어떻게 보도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은 어떠한 보도를 접하며 상대국에 대한 어떠한 인식과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한일 간의 갈등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식민지 지배라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상처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독도’라는 영토갈등의 문제는 특히 한국인에게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영토’, ‘다시 찾은 우리 조국’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독도문제는 정치, 경제적 이점을 획득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해 ‘잃어버린’ 36년 역사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 치유’처럼 연상되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간 정치적 이슈로 변하여 양국 정치가의 정치노선이 바뀔 때 마다 변화·각색·미화되어 한일 국민들에게 보도되어 온 경향이 짙었다. 이처럼 대중의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자국의 혹은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정치가의 망언발언을 확대보도하기도 하고 공론화하기도 하여 한국의 반일정서를 부추기기도 한다.

특히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보도경향이 강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초월할 수 없다는 보도기준을 전제로 하고 신문보도를 통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에게 이미지되고 형상화되는지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언론학자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sup>1)</sup>은 “뉴스란 기자가 만든 의사환경(pseudo environment)” 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가짜 환경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며, 행동의 결과는 현실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즉 인간은 현실 환경, 가짜 환경, 행동의 삼각형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인데 신문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의 이미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본래 사실의 어딘가를 생략 또는 덧붙여 왜곡 전달되어 의사성(擬似性)은 자칫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는 윤영철<sup>2)</sup>과 팽원순<sup>3)</sup>, 김정기<sup>4)</sup> 등으로 대표될 수 있고, 국외에서는 오모리<sup>5)</sup>, 다나카<sup>6)</sup>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프만의 논의와 과거선행연구를 전제로 하여 양국 언론의 독도관련 보도에 나타난 기사의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 양국의 대중에게 신문보도를 통해 인식되는 가짜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양국의 이미지와 그 성격을 살

1) Lippmann, W.(1922) Public Opinion, London : Free Press, pp. 18~19

2) 윤영철(1988) 「한일 신문의 독도관련 분쟁보도의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29호, p.102

3) 팽원순(1989) 『현대신문방송보도론』 법우사, p.44

4) 김정기(1991) 「한국신문의 대일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 51호

5) 오모리 미즈루(2000) 「신문사설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한국외대 석사논문

6) 다나카 아키키(2003) 「한일 신문보도에 나타난 상호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정균관대 석사논문

펴봄으로써 신문보도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되는 양국 이미지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일본의 언론보도

### (1) 미디어 내셔널리즘의 부상과 독도

미디어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간지 ‘신문’이 떠오른다. 일본은 신문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세계 제 2위의 신문 소비 국가이며(인구 천 명당 634.5부가 구독, 일본신문협회편호, 2007)이며, 발행부수 세계 4위까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신문대국이기도 하다<sup>7)</sup>. <아사히신문(朝日新聞)><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부수와 영향력 면에서 일본 신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대표적 신문에 대한 특성과 이념적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8)</sup>

물론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재편되고 기존의 종이신문의 권력이 옛날처럼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신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신문을 가장 많이 발행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며 하루 방문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일본 최대의 인터넷 게시판인 ‘2채널(니찬네루)’의 소스가 기존 미디어의 기사라는 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일본내 ‘혐한류(嫌韓流)’ 현상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일간지 기사의 재생산, 확대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토와 국가를 초월해 인터넷을 통해 상대국을 비하하거나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형태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미디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이시 유타카(大石裕)는 그의 저서 『미디어 내셔널리즘의 행방(メディア・ナショナリズムの行方)』 (朝日新聞社, 2006) 에서 “한일 간에 마찰이 발생했을 때 한일 양국의 미디어와 국민여론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셔널리즘을 증폭시켰으며, 이 같은 양상이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나 한국인들

7) 2003년 현재 <요미우리신문>(1440만부)세계 1위, <아사히신문>(1240만부)세계 2위, <마이니치>(568만부)세계3위, <닛케이>(480만부). 출처 [http://blog.naver.com/kyckhan\(2013.9.20](http://blog.naver.com/kyckhan(2013.9.20) 검색)

8) 야마모토 히게노리 저, 정탁영 역 「자기 색깔 고집하는 일본 전국지」 『바른언론』 1996.9 강준만의 책에서 재인용/ 1)아사히신문 : 좌경숙고형(左傾熟考型), 숙고하는 버릇과 깊이 있는 비판의식을 생기기 하는 것이 특징 2)요미우리신문 : 박식동조형(博識同調型), 친정부적인 성향의 신문.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3)마이니치신문 : 천광상식형(淺廣常識型). 객관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평범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주력 4)산케이신문 : 우경주장형(右傾主張型). 우경 주장형이고 설득적인 논조가 특징 5)닛케이신문 : 객관정보형(客觀情報型). 경제전문지로서의 성격을 탈피한 경제계의 일반지. 과학기술면의 해설이 압권

의 반일감정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문제는 만화 <협한류> 1권의 주요 내용인 것처럼, 영토문제는 특별히 내셔널리즘적 성향이 없는 사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다.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내용과 일본령이라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일본 일간지에서는 ‘독도’의 표기법에 따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신문과 ‘竹島(韓國名·獨島)’라고 병기하는 등 표기법의 차이가 있었다.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것은 자국의 영토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사 표시이며, 나아가 한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竹島(韓國名·獨島)’처럼 표기한 것은 자국의 입장뿐 아니라 한국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려는 의사 표시로 여겨진다.

아래의 <표1>와 같이, 진보적이고 좌익성향이 짙은 일간지라 평가받는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은 ‘竹島(韓國名·獨島)’라고 표기하는 반면, 우익성향이 짙고 보수성향을 대표하는 신문일수록 일본령임을 강조하기 위해 ‘竹島(島根縣隱岐の島町)’라 표기하고 있다.<sup>9)</sup>

## (2) 일본여론에 나타난 한국 인식 및 이미지

### 1) 일본인의 한국에 관한 친근감 여론 조사

한국에 관한 친근감 여론 조사에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친근감을 느낀다」 9.7% + 「느끼는 편이다」 29.4%),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59.0%(「느끼지 않는 편이다」 28.1% +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0.8%) 이다.

2011년 10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친근감을 느낀다」 (62.2%→39.2%) 는 비율이 하락하고,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5.3%→59.0%) 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성별로 분석하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여성이 높고,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성이 각각 높다. 연령별로 보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20대, 30대, 40대이며,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70세 이상이 각각 높았다.

#### 9) 신문사별 독도표기법

아사히신문	竹島(韓國名·獨島)
마이니치신문	竹島(韓國名·獨島)
도쿄신문	竹島(韓國名·獨島)
요미우리신문	竹島
니혼게이지신문	島根縣 竹島
산케이신문	竹島(島根縣隱岐の島町)

## 2) 일본인의 한일관계 양호도 조사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양호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18.4% (「양호하다」 2.0%+「그럭저럭 양호」 16.5%),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78.8% (「별로 양호하지 않다」 36.9%+「양호하지 않다」 41.9%) 을 기록했다. 2011년 10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양호하다」 (58.5%→18.4%) 는 비율이 하락하고, 「양호하지 않다」 (36.0%→78.8%) 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급격한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에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시)의 독도방문이 있었다. 2013년 4월 5일자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작년 8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독도를 방문한 사건 등으로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급속하게 악화,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는 회답은 71%이며, 이것은 지난번 2011년 27%에서 급증한 수치다. 1995년 이후 모두 9회에 걸친 조사 중에서도 최고치였다. 한국에서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8%(전회 64%)까지 증가해, 국민감정적인 면에서도 관계악화가 선명해졌다.>고,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 지적한다.

이어서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관해 극명하게 엇갈린 한일 양국간 국민인식을 조사했는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86%를 차지했는데 한국에서는 대조적으로 ‘적절했다’는 대답이 67%에 달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복수대답)에서도,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일본에서 68%, 한국에서 72%에 달해, 1순위로 꼽혔다.>. 즉, 한국인은 독도방문이 적절했다가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일본인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율이 90% 가까이 차지하여, 한일 양국간 상호인식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독도문제가 안정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를 위해 한국 신문은 <조선일보>, <한겨레> 그리고 일본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이유는 전국 종합 일간지의 발행 부수와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인데 여기서는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조선일보>와 진보지 성향이 강한 <한겨레>를 선택하였다<sup>10)</sup>. 일본 신문의 경우에도 발행 부수와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립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되

는 <아사히신문>과 가장 보수적 성향이 짙은 <산케이신문>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발행부수와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과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보수와 진보성향을 지닌 신문 4개를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이념성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신문 2개씩을 각각 선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인식의 차이점뿐만 아니라<sup>10)</sup>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를 좀 더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 시점인 2012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8일간, 즉 2012년 8월 10일~8월 18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자회사 홈페이지에서 기사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독도'라는 키워드 검색을 실행하였고 일본 신문 또한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竹島'라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여 기사추출을 하였다. 기사추출 후 명백히 독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별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

<표1> 신문별 분석대상(단위: 건(%))

신문사	조선일보	한겨레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합계
기사	61(20.3)	83(27.7)	61(20.3)	95(31.7)	300(100)

## (2) 분석유목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sup>12)</sup>의 독도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약 일주일간 독도관련 보도가 어느 정도로 쏟아져 나왔는가 알아보기 위해 한일 양국의 각 신문사의 일자별 기사의 양을 추적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사유형과 기사의 취재원 유형을 분석유목으로 선택했다.

기사유형은 ①스트레이트 기사 ②해설기사 ③사설 및 칼럼 ④인터뷰 기사 ⑤기타(독자투고 및 가십)으로 분류하였고, 취재원 유형은 ①내부기자의 취재보도 ②특파원·통신원의 취재보도 ③국내필자 기고 ④외부언론 인용보도 ⑤외부언론사 보도 전채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분석대상 기사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시각에서 보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보도기사의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8가지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신문산업 실태조사』 pp.154-155/ 언론의 성격은 정치적 성향과 논조에 따라 보수지나 진보지나에 의해 달라진다. <조선일보>는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대변하고 있으며 <한겨레>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이는 각 신문사의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각 신문이 가지고 있는 진보나 보수나에 대한 이념의 시각차는 상대국에 대한 보도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리라 생각된다.

12) 본 논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편의상 이 전대통령 혹은 MB라는 명칭을 병용한다.

(a) MB의 독도방문 (b) ICJ(국제사법재판소)제소 관련 (c) 독도 세리모니(박종우 축구선수 세리모니, 독도횡단수영) (d) MB의 일왕 사과 발언 (e) 동북아영토갈등 (f) 역사인식, 과거사 문제, 위안부문제 등 (g) 한일 민간 교류 및 반대 시위 (h) 경제 국방 환경(방과제, 과학기지건설)

기사의 논조는 위의 보도기사의 주요 쟁점 8가지 중에서 명확하게 지지와 비판으로 엇갈리는 사안이었던 (a) MB의 독도방문 기사에 대하여 (1)긍정적 (2)부정적 (3)중립적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 4. 연구결과

### (1) 보도의 양적 분석

MB의 독도방문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일 양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직전인 2012년 7월에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메르베데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이었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하였지만 이와는 사뭇 다른 것이 한국과 일본의 반응이다.

아래의 <표2>는 MB의 독도방문 이후 급격하게 쏟아지는 기사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한일 양국 신문 중에서도 일본의 우익성향이 짙은 <산케이신문>의 기사 수는 8일간 95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겨레>가 83건, <조선일보>와 <아사히신문>이 동일하게 61건의 기사를 싣고 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MB의 독도방문이 있던 직후인 8월 11일 기사가 전체 46건으로 가장 많고 8.15 광복절 연설 직후에 40건,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케이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가장 많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10건 이상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독도방문 이후 독도관련 기사 게재 건수

신문사/일자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합
조선일보	0	10	0	11	4	5	11	8	12	61
한겨레	11	5	18	11	7	11	7	12	1	83
아사히신문	3	13	4	6	5	5	8	8	9	61
산케이신문	7	18	8	5	11	10	14	10	12	95
합계	21	46	30	33	27	31	40	38	32	

이것은 MB의 독도방문 직후 일본 외교상의 유감표명과 주한 한일대사의 소환 등이 이어지고 8월 11일에는 런던 올림픽 한일 축구전에서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

세리모니 논란까지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8월 14일에는 다시 MB의 일왕 사과 발언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여론은 뜨겁게 달구어지며 일본 우익단체의 반한시위로까지 번지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가세하여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도 배우 송일국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을 연기하는 등 일반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으로 번지게 된다.

이처럼 정치보도가 단기간에 거대한 전파력을 가지고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는 양상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수우익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에서 한국 신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사를 싣고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경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신문에서도 여당성향이 강한 <조선일보>보다는 야당성향이 짙은 <한겨레>에서 MB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서 많은 양의 기사를 싣게 된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 분석에 관해서는 신문기사의 질적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3>한일 양국 신문의 기사유형별 게재 건수(단위: 건(%))

	해설	스트레이트	사설·칼럼	인터뷰	기타(독자투고,가십)	전체
한국신문	21(13.8)	96(67.5)	15(10)	5(3.2)	7(5.5)	144(100)
일본신문	15(10)	107(68.3)	23(13.3)	3(2.4)	8(6)	156(100)

먼저 한국 신문과 일본 신문의 기사유형별 게재건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더 많았고 사건의 전후 배경이나 원인분석을 실시한 ‘해설기사’는 한국 신문이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일본 신문이 신문사 내부와 외부필진에 의한 기고나 투고에 의한 ‘사설 및 칼럼’ 부분이 더 많은 비율로 게재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신문이 신문사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여론수렴과 여론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4>는 신문별 기사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4개 신문 모두 사실보도 중심의 ‘스트레이트’(203건, 67.6%)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설 및 칼럼’이 38건으로 12.7%를 기록했으며 기사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해설기사’가 36건으로 ‘사설 및 칼럼’ 다음을 차지했다. 그 밖에 독자투고 및 가십형태의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여 이 부문이 15건(5%), 1:1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기사’가 12%를 나타냈다.

이를 각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스트레이트’기사가 45건으로 전체 기사 중 73.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다른 4개의 신문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기사가 6건(9.8%), ‘해설기사’가 5건(8.2%), ‘사설 및 칼럼’이 4건(6.6%), ‘인터뷰’부문이 1건(1.6%) 순이었다.

<표4>한일 양국 신문의 기사유형별 게재 건수(단위: 건(%))

	조선일보	한겨레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전체
해설	5(8.2)	16(19.3)	7(11.5)	8(8.4)	36(12)
스트레이트	45(73.8)	51(61.4)	41(67.2)	66(69.5)	203(67.6)
사설·칼럼	4(6.6)	11(13.3)	4(6.6)	19(20)	38(12.7)
인터뷰	1(1.6)	4(4.8)	3(4.9)	0(0)	8(2.7)
기타	6(9.8)	1(1.2)	6(9.8)	2(2.1)	15(5)
전체	61(100)	83(100)	61(100)	95(100)	300(100)

<한겨레>는 ‘스트레이트’기사가 51건(61.4%)으로 가장 많아 <조선일보>와 동일했으나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예상되는 영향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설기사’가 16건(19.3%)으로 <조선일보>보다 비율상 2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 신문과 비교하여도 4개 신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사설 및 칼럼’이 11건(13.3%), ‘인터뷰’부분이 4건(4.8%), ‘기타(독자투고 및 가십)’이 1건(1.2%)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유형은 41건(67.2%)을 기록한 ‘스트레이트’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해설기사’ 7건(11.5%), ‘기타(독자투고 및 가십)’ 6건(9.8%), ‘사설 및 칼럼’과 ‘인터뷰’기사가 각각 4건(6.6%), 3건(4.9%) 순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도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기사가 가장 현저하게 높았으며(66건, 69.5%), 이 수치는 <조선일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설 및 칼럼’이 19건(20%)인데 이것은 다른 4개의 신문사와 비교하여 가장 현저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뷰’기사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타(독자투고 및 가십)’부분도 2건(2.1%)에 불과하여 다른 신문들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신문 모두 독도관련 보도에 관해 비교적 객관적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겨레>가 ‘해설기사’가 가장 많은 것은 MB의 독도 방문사건 및 일련의 사건에 대한 배경이나 영향력 등을 심도 있게 분석적으로 다루려고 하였으며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신문사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시사·사회적 관점에서 이슈를 평가하려는 ‘사설 및 칼럼’이 가장 많았다. 이는 <산케이신문>이 독도방문 등의 보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신문사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일 양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취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표5>참조), 한국 신

문은 ‘①내부기자의 취재기사’가 일본 신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②특파원과 통신원의 취재보도’에 있어서는 일본 신문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의 독도방문이나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등이 모두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한국 신문에서는 내부 기자에 의한 기사작성이 많았고 일본 신문의 경우에는 반대로 한국 주재 특파원이나 통신원에 의해 취재된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④외부언론 인용보도’ 또한 일본 신문은 한국의 통신사나 신문사의 기사를 많이 받아 인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보더라도, 한국 신문이 특파원이나 통신원에 의한 취재보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일본 현지의 상황이나 여론 정서 등을 전하는데 소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일본 신문은 해외 주재 특파원과 통신원이 한국내 정서와 여론을 반영하는데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표5>한일 양국 신문의 취재기사의 취재유형별 게재건수(단위: 건(%))

	한국 신문(%)	일본 신문(%)
①내부기자의 취재보도	89(62.7)	15(9.9)
②특파원·통신원의 취재보도	29(19.7)	107(68.4)
③국내필자 기고	18(12.8)	23(13.3)
④외부언론 인용보도	0	3(2.5)
⑤외부언론사 보도 전제	8(4.8)	8(5.9)
합계	144건	156건

<표6>은 한일 양국 4개 신문사의 취재유형별 게재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이 해외 특파원과 통신원에 의한 취재보도 비중이 <아사히신문>과 거의 동일하게 높았고, 그 다음은 <한겨레>와 <조선일보>순이다. 특히 <산케이신문>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특파원과 통신원에 의한 취재보도가 가장 많았고 내부기자에 의한 취재보도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이 보수 성향이 짙은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으며 한국내 여론이나 분위기를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교하여 <조선일보>는 내부기자의 취재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외부언론의 인용보도나 외부언론사 보도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한겨레> 또한 유사하게 내부기자의 취재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②특파원·통신원의 취재보도, ③국내필자의 기고, ⑤외부언론사 보도 전제 순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 신문이 일본 신문보다는 상대국인 일본의 여론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일본 신문은 한국 신문보다 다소 상대국 중심으로 한국내 여론과 입장을 전달하는데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표6>신문사별 취재기사의 취재유형별 게재건수(단위: 건(%))

	조선일보	한겨레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①내부기자의 취재보도	42(68.8)	47(56.6)	7(11.5)	8(8.4)
②특파원·통신원의 취재보도	10(16.4)	19(22.9)	41(67.2)	66(69.5)
③국내필자 기고	9(14.8)	9(10.9)	4(6.6)	19(20)
④외부언론 인용보도	0	0	3(4.9)	0
⑤외부언론사 보도 전제	0	8(9.6)	6(9.8)	2(2.1)
합계	61건	83건	61건	95건

<표6>은 한일 양국 4개 신문사의 취재유형별 게재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이 해외 특파원과 통신원에 의한 취재보도 비중이 <아사히신문>과 거의 동일하게 높았고, 그 다음은 <한겨레>와 <조선일보>순이다. 특히 <산케이신문>의 경우, 다른 신문사보다 특파원과 통신원에 의한 취재보도가 가장 많았고 내부기자에 의한 취재보도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이 보수 성향이 짙은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으며 한국내 여론이나 분위기를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교하여 <조선일보>는 내부기자의 취재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외부언론의 인용보도나 외부언론사 보도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한겨레> 또한 유사하게 내부기자의 취재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②특파원·통신원의 취재보도, ③국내필자의 기고, ⑤외부언론사 보도 전제 순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 신문이 일본 신문보다는 상대국인 일본의 여론이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일본 신문은 한국 신문보다 다소 상대국 중심적으로 한국내 여론과 입장을 전달하는데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낸다.

<표7>한일 양국 신문의 보도 쟁점별 게재 건수

		한국신문	일본신문
독도 관련 기사의 주요 쟁점	MB의 독도방문	29	47
	ICJ(국제사법재판소)제소 관련	9	12
	독도 세리모니 관련(박종우선수 세리모니, 독도횡단수영)	20	20
	일왕 사과 요구 발언	13	13
	동북아영토갈등	13	10
	역사인식, 과거사 문제	8	9
	한일 민간 교류 및 시위	8	14
	경제 국방 환경(방과제, 과학기지건설)	9	5
기타	35	26	

<표7>은 한일 양국 신문의 보도 쟁점을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결과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MB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가장 많은

양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대로 MB의 독도방문이 한국보다 일본 여론에 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2배 정도의 기사 양을 쏟아내며 시시각각 한국 여론의 추이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도하고 있다. 이후 이를 계기로 일본 측에서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움직임과 주한 대사를 소환하는 방침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대외적으로는 박종우 선수의 ‘독도는 우리 땅’세리모니까지 더해진다. 한국 신문이나 일본 신문 모두 MB의 독도 방문 다음으로 ‘독도 세리모니’에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MB의 독도 방문이라는 정치적 사안이 사회적 사안으로 전환되며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일반 대중의 핫이슈로 일시에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은 SNS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신문은 이러한 여론 분위기를 내셔널리즘적으로 몰아가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어서 보도된 MB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신문은 국내외 민간교류의 지속 및 중지, 그리고 일본 내 우익단체의 반한시위 등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분쟁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 영토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신문 ‘신냉전시대’라는 타이틀로 특집을 기획하거나 관련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그럼 다음 장의 2)보도의 질적 분석에서는 <표7>에 나타난 한일 양국 신문의 보도 쟁점에 관해 각 항목별로 신문사별 보도행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2) 보도의 질적 분석

보도의 질적 분석에 있어서는 보도기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언론이 어떤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분석유목은 각 신문사별 기사를 리뷰한 뒤 기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유목을 정하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선택했다. 여기에서는 이 방법에 의해 분류한 8가지 주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MB의 독도방문 항목에 관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언론의 국제보도가 집중되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주한 대사를 소환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강경하게 비난하였으며 연이어 통화 스와프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연이어 축구선수의 독도세리모니 논란, 일왕 사과요구 발언 등 독도문제는 정치적 사안에서 한일 양국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보도로 연일 국민감정을 뜨겁게 부채질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시발점이 된 현직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관한 보도를 분석하고 그 보도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즉 일본

언론이 묘사하는 보도를 통해 형성된 한국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일본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한국내 여론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領有權)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상징적 조치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시도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8월 11일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내의 이런 흐름에 쐬기를 박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다. 일본이 지난 100년간 이웃 나라들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어정쩡한 반성마저 수시로 뒤집고 종군(從軍) 성노에 문체와 역사왜곡에 대해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의 몰염치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는 분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8월 11일자 사설)

즉,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 영유권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상징적 조치’이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시도에 강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지금까지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하기엔 상징성과 강도가 너무 세다. 정책전환이라고 하기엔 너무 돌발적이다. (중략)일본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친인척 비리와 실정으로 임기 말 권력누수에 빠진 이 대통령이 곤경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감정적 호응이 큰 일본 문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광복절과 런던올림픽 한-일 축구 대결을 코앞에 둔 시점을 택한 것을 보면, 국내 여론을 강하게 의식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겨레>8월 10일자 사설)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독도방문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열리는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 맞춰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략)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Supersub\*\*\*\*\*)는 “경제도, 4대강도, 지지율도 떨어지니 할 수 있는 것은 독도 방문뿐! 축구 한일전, 광복절 등을 맞이하여 새누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꼬집었다. (<한겨레>8월 10일자)

<한겨레>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임기 말 친인척 비리와 레임덕 현상을 탈피하

고자 하는 인기 영합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논조이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그대로 실어 광복절 전 지지율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관한 신문사간 의견 차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 독도방문과 관련한 일본 신문의 보도 기사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자.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등을 떠민 것은 이러한 현안보다도 본인의 신변 문제 때문은 아닐까.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 주변에서는 친형과 측근의 체포가 이어졌다. 경제격차의 확산에 대한 불만도 강하고 정권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중략) 내정이 어려울 때 위정자가 국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은 역사에서도 흔한 일이다.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영토문제는 가장 좋은 재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씨를 자르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도자의 책무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朝日新聞>8월11일자 사설)

<아사히신문>은 MB의 독도방문이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영토문제이며 한국내의 경제문제와 정권의 힘을 회복하고 국민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기 위한 방책이라고 비난한다. <산케이신문>은 <아사히신문>보다 한층 강도를 높여 독도방문을 강경하게 비난한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일본정부의 중지요구를 무릅쓰고 상륙했다. 한일 신뢰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노다수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정부는 무토 주한대사를 즉시 귀국시키는 사실상 소환을 결정했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짓밟는 외국 수상의 행동에 대해 보다 강한 대항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략)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이대통령은 친형인 전 국회의원과 측근이 금전 스캔들로 체포되는 등 정권의 구심력을 잃고 있다. 일본에 의한 통치로부터 해방을 축하하는 15일 광복절 전에 인기회복을 노리고 한일 우호관계를 희생한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다. (<産経新聞>8월 11일 사설)

<산케이신문>은 독도 방문이 양국의 신뢰관계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측근비리와 정권의 구심력 약화에 따른 인기회복에 있으며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신문의 보도양상은 <표8>을 참조하면 자세하게 나타난다. <표8>은 한일 양국 신문에 나타난 ‘MB의 독도방문’에 관한 기사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한일 양국 신문에 나타난 기사의 논조

국가	신문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전체
일본	아사히신문	0	11	13	24
	산케이신문	0	28	3	31
한국	조선일보	5	3	4	12
	한겨레	0	16	4	20

즉, 일본신문의 경우 ‘독도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는 단 한건도 없으며 진보적인 성향의 <아사히신문>조차도 부정적 논조가 11건, 중립적 보도의 논조가 13조로 나타났다. 비교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설 및 칼럼’에서도 <산케이신문>은 한국을 비판하고 있었으며 <아사히신문>은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28건으로 현저하게 많았고 중립적인 논조의 기사는 3건에 불과했다. 일본 우익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사인 만큼 한국과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보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독도방문을 보도한 기사가 5건으로 제일 많았고 <한겨레>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가 16건, 중립적 논조가 4건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만이 한일 양국 신문 중에서도 유일하게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5건으로 가장 많아 명백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현 정부와 정권의 시각과 입장에 선 보도를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9><표10>은 구체적으로 ‘MB의 독도방문’ 기사에 나타난 기사에 관한 ‘긍정적’ 제목성향과 ‘부정적’ 제목 성향을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긍정적인 제목의 용어는 <조선일보>가 8건, 부정적인 제목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조선일보>는 국가원수로서 우리 영토에 당연히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상 첫 방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행한 작가들의 말을 빌려 “내 땅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자긍심”이나 “역사가 되는 순간에 동행”했다고 우회적으로 독도방문을 지지하는 신문사의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일보>에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일본에 대한 반일(反日) 성향이 강하다기 보다는 친정부적, 친여당적 성향이 짙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여론과 외교정책보다는 국가적 이념을 우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부정적인 제목이 7건, 긍정적인 제목이 2건으로 부정적인 성향의 제목이 많았다. ‘깜짝쇼’라든지 임기 말 레임덕을 회피하기 위한 ‘뜬금없는’, ‘독도 강공몰이’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사 유례없는 실패작”이라는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 현안에 관해 국가적 이념 보다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의 여론과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방향의 보도 프레임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9>한국 신문의 ‘긍정적’ 제목 성향

	<조선일보> (8건)	<한겨레> (2건)
8.10		사상 첫 ‘독도방문’ “우리 땅서 무슨”
8.11	MB의 해비급 카드 독도 첫 방문 “독도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우리 영토” “내 땅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자긍심” “역사가 되는 순간에 동행”	
8.14	“독도서 하루 자고 오려고 했다” “일본의 반응 예상했던 것”	
8.18	“李대통령 독도 방문, 포퓰리즘 아니다”	

<표10>한국 신문의 ‘부정적’ 제목 성향

	<조선일보>(1건)	<한겨레> (7건)
8.10		임기말 깜짝 독도방문 외교부 철저 소외‘정치적 결정’ 뜬금없는 지지율 높이려
8.12		‘깜짝쇼?’ ‘독도 강공몰이’
8.16		“세계사 유례없는 실패작”
8.17	“차日 포퓰리즘 하고 있다”	

<표11>은 ‘MB의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 신문의 제목 성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모두 부정적인 성향의 제목 성향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성향의 제목은 한건도 없었으며 모두 부정적인 성향의 제목이었다. ‘MB의 독도방문’에 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11>일본 신문의 ‘부정적’ 제목 성향

	아사히신문 제목(9건)	산케이신문 제목(15건)
8.10	不快感(불쾌감)	人氣取り,外交放棄,愛国アピール(인기영합,외교포기,애국어필) 「極めて遺憾」(‘극히 유감’) 「日韓關係に悪影響」(‘한일 관계에 악영향’)
8.11	きしむ(삐걱거리는 ) 分別なき行い (분별없는 행동) 不意打ち (기습적) 「前代未聞の暴挙」(‘전대미문의폭거’) 「極めて遺憾」(‘극히 유감’) すきを突いた(빈틈을 찌른)	日韓、氷河期に突入(한일 빙하기로 돌입) すがる「愛国」(매달리는 ‘애국’) 「友好關係に水差す」(‘우호관계에 물을 끼었다’) 「人氣取り」(‘인기영합’) 暴挙 (폭거)
8.12	大国らしからぬ(대국답지 않은)	

8.14		不法占拠 (불법점거) 「売国奴の茶番劇」(‘매국노의 연극쇼’)
8.15		「パフォーマンス」(‘퍼포먼스’)
8.16	「ご乱心」(난심)	豹変 (표변) 反日の勲章 (반일의 훈장)

가장 진보적 성향이 짙은 <아사히신문>조차도 독도방문에 관해 ‘극히 유감’, ‘기습적’, ‘분별없는’, ‘전대미문의 폭거’, ‘대국답지 않은’, ‘분별없는’ 등의 공격적이고 비호의적인 보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익성향을 대표하는 <산케이신문>은 더욱 강도를 높여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용어로 보도하고 있는데, 8월 14일자 기사에서는 ‘매국노의 연극쇼’ 라는 원색적인 북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신문과 일본 신문은 국가적 이익과 이념에 의해 서로 다른 보도 틀을 제공함으로써 한일 양국민의 감정을 내셔널리즘적으로 몰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행태에 여과 없이 노출된 여론과 대중은 한일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더욱 적대적인 정서를 고조시킬 수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 보도를 통해 여론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소지가 많으며 일본 또한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와 다르게 우경화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일본 국민의 감정을 분노케 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보도 행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을 대신해

MB의 독도방문에 관해서는 사건 발생 후 1년여가 흐른 현재에도 ‘잘했다’, ‘잘못했다’ 등 한국내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이에 관해 일본신문의 사설(2012.8)을 통해 일본의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일본의 주요 신문에 나타난 사설의 표제이다.

- 산케이신문** \* 폭거 용서치 않는 대항조치를 취하라(11일자)  
\* (독도제소거부)한국은 왜 등을 돌리는가(23일자)
- 아사히신문** \*대통령의 분별없는 행위(11일자)  
\* (독도제소)대국적 견지에 선 한일관계를(23일자)
- 마이니치신문**\*깊은 가시를 어떻게 뽑을까(12일자)  
\* (영토외교)국제여론을 내편으로 만들라(21일자)

- 요미우리신문**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폭거다(12일자)  
 \*("독도"제소로)일본 영유의 정당성을 발신하라(18일자)
- 닛케이신문** \*한국대통령 독도방문의 어리석음(12일자)  
 \*독도문제제소를 한국의 맹반성을 촉구할 기회로(22일자)
- 도쿄신문** \*한일 미래지향 깨뜨렸다(12일자)  
 \*("독도"국제제소)대립확대 피하는 인내를(18일자)

일본의 6개 신문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사설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먼저,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반세기 이상 불법점거한 일본 영토에 상륙강행한, 일본의 주권을 짓밟는 행동'이라며 여과 없는 분노를 표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대통령의 행동을 '한일 신뢰관계 근간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단언하고,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영토주권으로 단호한 자세를 보여 주지 않으면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지배는 점차 강화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다른 신문은 '장래의 한일관계에 큰 화근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닛케이신문>)이라는 비판 외에도, '대통령의 성급함에는, (위안부문제를 뒤집은 것에 더해)한층 실망을 금할 수 없다'(<요미우리신문>), '임기 태반은 좋은 관계를 쌓아온 만큼 실망감은 깊다'(<도쿄신문>)라고, 이 대통령에 건 기대가 배반당한 것을 강조하는 논조도 보였다.

독도문제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요미우리신문>이 '독도에 관한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인지시키는 의의는 크다'고 논하는 등 6개 신문 모두가 지지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산케이신문>은 제소를 거부한 한국정부 자세에 주문을 붙였다. "“글로벌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이 영유권 정당성에 자신감이 있다면, 왜 국제적인 심판의 뜰에 등을 돌리는가'.

독도문제와는 별개로, 이대통령이 회합 석상에서 천황폐하를 언급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돌아가신 독립운동가에게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가 사설의 테마로 거론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국민의 신경을 자극하는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현 상황은 너무 자극적이며 너무 위험하다'고 이대통령에게 강한 자제를 요구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대통령의 '폭언'에 대해서도, 신속하며 명확하게 발언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지 않은 노다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갔다.

위안부문제로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는 <아사히신문>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화를 그만두면 일본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대항조치와 대국적 견지에 선 외교를 현명하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신문>도 대항조치를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문을 나타내고, ‘감정에 맡긴 과잉반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노보루 세이치로(전 내각외정심의실장)은 아사히신문에서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일본의 영토문제 강함과 부드러움 나누어 현실적 대응을’, 나의 시점, 노보루 세이치로, 2013.1.18.자 기사). 그는 일본과 얽힌 북방영토와 독도, 센카쿠문제에 대해 각각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2도(島)+알파’의 즉각 반환을 실현하고 평화조약은 미루고 남은 부분은 장래 교섭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곳이라 강조한다. 이에 비해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의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일본의 주장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 발언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중국, 한국과 얽힌 영토문제에 대해 필자는 강경책과 유연책을 나누어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책으로 잠정합의하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 국익이며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일본 정치인의 주장은 장래 한일관계 갈등 개선에 시사적이며 앞으로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만한 의견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김정기(1991) 「한국신문의 대일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 51호
- 이은주(2001) 「역사교과서개정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p.23
- 최문희(1993)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른 신문보도의 반영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 윤영철(1988) 「한일 신문의 독도관련 분쟁보도의 비교분석」 사회과학논집29호, p.102
-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신문산업 실태조사』 pp.154-155
- 팽원순(1989) 『현대신문방송보도론』 범우사, p.44
- 오모리 미즈루(2000) 「신문사설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한국외대 석사논문
- 다나카 아키코(2003) 「한일 신문보도에 나타난 상호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p.10
- 야마모토 히게노리 저, 정탁영 역 「자기 색깔 고집하는 일본 전국지」 『바른언론』 1996.9
- Lippmann, W.(1922) Public Opinion, London : Free Press, pp. 18-19

要 旨

---

In this paper, one day at the time of the conflict reaches the apex to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through newspaper reported that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study the image of what South Korea and Japan wi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tendencies to select papers 4 Comparative analysis was attempted.

The two newspapers one day after visiting the islets MB suddenly poured out of the article to figure the amount of Japanese right-wing tendencies in that dark <Sankei Shimbun> record with the most number of articles, and then the <Hankyoreh>, <Chosun Ilbo>, <Asahi Shimbun> is unique. Among them <Sankei Shimbun> South Korea than most newspapers published many articles, and articles almost every day, more than two-digit number, which is reported, thus the propagation of a huge political news in the short term have spread to the general public in Japan view aspects may be a rare phenomenon. In particular, a strong conservative right-wing tendencies <Sankei Shimbun> South Korea is much more than a large amount of newspaper articles that reflect the opinion put the current deepening woogyehwa phenomenon and a social phenomenon in Japan will also be closely related.

キーワード : Dokdo, Newspaper, Media Coverage, Image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